

“고통, 빛의 시간”



최충희 (작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다가 2000년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은퇴한 남편과 함께 영구 귀국해 여수에서 살면서,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길어야 6개월이라는 뼈암 사망선고를 받고 주변을 정리하는 2주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지인의 도움으로 저명한 뼈암 전문 의사를 다시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 사진을 면밀히 살펴보다니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 척수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검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사항에 대한 설명서에 사인을 한 후,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실 안에는 긴 바늘들이 달려 있는 커다란 기계가 천정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뻗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제 마음까지 얼어 붙게 만들었습니다. 척추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위험한 검사를 받기 위해 엎드려 기다리던 그 때, 저는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순간, 형용할 길 없는 평안이 제 안에 고이기 시작했고 저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수술을 앞둔 성도를 심방할 때마다 들려주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명료히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했지요.

척수검사 결과, 제 병은 뼈암이 아닌 ‘년 호지킨 스 라지 비셀 림포마’라는 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악성 림프종이라 합니다. 이 암은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림프종의 유형 중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저는 척추 속을 비롯해 전신에 퍼진 4기였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영락없는 뼈암 말기였는데 척수검사를 해보니 림프종 4기라는 것이었지요. 의사는 뼈암이었다면 가망이 없었지만 림프종은 약물에 반응만 한다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학치료를 받으면서 투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흔히 그러하듯, 저도 약물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말초신경 문제로 잘 걷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수면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감염이 잦았고, 단위가 높은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해 보름달처럼 통통 부은 얼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야아! 우리 집은 승려랑 목사가 한집에서 사이 좋게 사네, 그러?” 민둥산인 머리에 눈썹이 빠져서 밋밋하고 전체적으로 이상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제게 남편이 던진 한마디.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주고 싶어 제게 던진 남편의 유머입니다.

치료의 횟수가 더해 갈수록 몸은 그만큼 힘들어 졌지만, 육신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 영혼의 기쁨까지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주중에는 집으로 여성도들을 초대해 ‘내 인생의 남은 한 달’이라는 책을 교재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투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님들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저를 응원해 주셨고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가득 담긴 카드와 편지들,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격려의 메일들, 배달되어 온 꽃다발, 건강을 생각해서 조리한 특별한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로 간구한 뜨거운 기도가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힘입어 힘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고, 완쾌된다는 확실한 약속은 없었지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기간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육신의 병뿐 아니라 제 영혼의 병도 보여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자라고 있는 무서운 암 덩어리들을 저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들추어 내셔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수술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치료 과정을 모두 마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 제게 느닷없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는 그칠 수 없는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로운 빛 가운데 드러난 영혼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제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요.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 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이젠 두려울 것이 없다고 믿음의 용사라도 된 듯 들떠 있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보여 주신 제 모습은 정말 의외였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섭게 번식하여 자라고 있는 영혼의 암덩어리를 빛으로 드러내셔서 그 실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름을 지닌 중증의 병이었습니다. 교만과 자아 성취 욕구라는 암세포,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신앙 행태, 특권의식과 이중성이 농후한 바리새인적 병세...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영혼의 암 덩어리가 제 영혼에 파리를 틀고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차 없이 들추어 내셔서 치료해 주시는 시간. 저는 제 육신을 잡아먹고 자란 암뿐 아니라 제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진을 치려 했던 암세포들까지, 오랜 시간 대수술을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무용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그래서 도와 주셔야 살 수 있다고 늘 투정부리듯 기도해 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유용하고 쓸모 있어 보이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 왔는데, 사실은 그 동기가 제 존재의 유용성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어디론가 숨고 싶을 정도로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동안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100퍼센트인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나의 체험이, 신앙 연륜이, 나의 기도와 성경 지식, 선행과 노력과 헌신이 30퍼센트, 60퍼센트, 80퍼센트로 자라나, 어느 순간 나의 의가 나를

구원하고 있노라고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할 뻔한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유용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신에 대한 무용성을 절감함으로 하나님은 비로소 인간 자신의 유용성을 훨씬 넘어서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는 깨달음. 이 사실을 머리로가 아닌 삶으로 체험했던, 아프고 부끄럽지만 제게는 꼭 있어야 할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과분한 선물이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과 공감하는 고귀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소음을 종식시키고, 고독의 깊은 심연에서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신음소리를 듣는 시간...

고통은, 제게 그런 귀한 체험이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 119:71-72).



* 홍성사 「희망 온 에어」의 일부를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실었습니다.